

#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일곱

열한과 스물둘

Jeff Pippenger

2026-04-04

다니엘 11장 16절과 22절은 둘 다 임박한 일요일 법과 일치한다. 1989년에 이루어진 10절의 성취는 2014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기원전 217년에 있었던 라피아 전투가 11절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또한 11절부터 22절까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6절에 의해 표상된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또한 11절부터 22절까지의 역사로도 표상된다.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11절부터 22절에 의해 표상된다.

## 제11장부터 제22장까지

그 숨겨진 역사는 또한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11장부터 22장까지에도 표상되어 있다. 그 "11장부터 22장까지"의 네 증인은 그 숨겨진 역사와 일치하는데, 이는 그 숨겨진 역사가 다니엘 11장의 11절부터 22절까지이기 때문이다. 그 네 증인의 중심은 언제나 언약의 표징을 식별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으로 표상된 죽음의 언약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7장의 로마의 음녀로 끝난다.

## 열일곱

마태를 제외하고, 네 증인은 모두 제17장을 그들이 묘사하는 기간의 중간점으로 제시한다. 숫자 17은 또한 기원전 457년, 64년, 1776년에 시작된 세 개의 250년 예언들 가운데 각각에서 세 번 발견된다. 그 선들 가운데 두 선, 곧 (첫째와 마지막)은 중간점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선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 기원전 207년에 끝났고, 마지막 선은 1776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끝난다. 기원전 207년은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에 있었으며, 2026년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의 임기 중간점이다.

세 개의 이백오십 년 노선 안에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십칠 년 동안 통치하였다. 네로의 노선에서는 313년과 330년 사이에 십칠 년이 있으며,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와 기원전 200년 파니움 전투 사이에도 십칠 년이 있었다. 11장부터 22장까지의 네 증인 가운데 셋은 그 정확한 중간점을 17장으로 표지한다. 그러므로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같은 장의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 제시되며, 11장부터 22장까지의 네 증인은 바로 그 동일한 절들과 일치한다. 이 세 개의 이백오십 년 예언 각각의 성취는 바로 그 동일한 역사와 일치한다. 그 중간점은 이정표로서 강조되며,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인의 상징으로 확인된다.

##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7절, 11절, 12절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마지막 기간을 규정한다. 7절은 2023년 12월 31일을, 12절은 2020년 7월 18일을 가리킨다. 2020년 7월 18일에 시작되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난 7절의 흠어짐은 다니엘 12장에 위치한 예언적 시간의 세 절

안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로 표상되었다. 1,290년의 가운데 절은 1989년부터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까지의 역사를 30으로, 그리고 그 후 1,260을 인간의 은혜의 시기의 마침까지로 규정한다. 30년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 직분의 나이를 나타내며, 1260년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상징적 마흔두 달을 예표한다.

30에 이어 천이백육십 년이 따르는 이중 예언은 아브라함과 바울의 사백 년과 사백삼십 년의 이중 언약 예언을 상징한다. 다니엘 12장의 세 시간 절들의 중간점은 열세 번째 글자의 반역을 나타내는 동시에, 십사만 사천의 언약과 인침을 강조한다. 또한 그 세 절은 감추어진 역사와도 일치하며, 중간점이 언약의 상징임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한다.

## 봄과 가을

이 모든 노선과 함께,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위치한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세 증인을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오순절 계절과 일치시키고 결합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거기서 그 장은 23장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상징이다. 그 장은 44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징적으로 1844년 10월 22일을 나타낸다. 10월 22일은 10월의 22일을 나타내며, 첫째 날에서 시작하여 스물두째 날에 이르기까지이므로, 따라서 히브리 알파벳의 증표를 지니고 있다. 10월은 열째 달이므로, 이것을 스물두째 날과 곱하면 220이 된다.

히브리력에서 일곱째 달 열째 날은 속죄일이었으며, 열 번의 일곱은 곧 칠십이니, 이는 은혜의 기간을 상징한다. 이천삼백 년은 그 기간을 시작하게 한 셋째 칙령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가 도착한 1844년에 끝났다. 이천삼백 주야의 시작에서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기간으로 정하여진 칠십 이레가 있었고, 그 날들의 끝에서는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일곱째 달 열째 날로 표상되었으니, 이는 칠십에 해당한다. 1844년 10월 22일은 임박한 일요일 법을 예표하며, 바로 거기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위한 상징적 칠십 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니, 이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같다.

1844년은 두 천사가 도래한 한 시기를 나타내니, 둘째 천사는 첫 번째 실망 때에, 셋째 천사는 큰 실망 때에 이르렀다. "44"는 다니엘 11장 44절의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소문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이중의 기별을 나타낸다. 레위기 23장은 마흔네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절들은 거룩한 절기들을 봄과 가을로 구분한다. 그 마흔네 절은 이중의 기별을 나타낸다. 그 두 계절은 각각 스물두 절로 표상되므로, 봄 절기와 가을 절기 둘 다 히브리 달력의 스물두 글자를 나타낸다. 스물두 절로 된 그 두 증인이 오순절의 시기와 더불어 함께 결합될 때, 그것들은 세 단계의 틀을 산출한다.

첫 번째 이정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뒤에 다섯 날이 따르는데, 이는 세 이정표 가운데 마지막 이정표와도 같다. 가운데 이정표는 승리하는 교회에서 봉사할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대면하여 베푸시는 삼십 일간의 교훈이다. 레위기 23장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부합한다.

## 중간점들

창세기 11장부터 22장에 이르는 계열의 한가운데는 17장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세 단계 언약 가운데 두 번째 단계와 할례의 표징이 제정되었다. 11장에서 22장까지에 위치한 모든 절들의 정확한 중심은 창세기 17:22이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이삭과 세우리니, 사라가 내년 이 정한 때에 그를 네게 낳으리라. 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올라가셨다. 창세기 17:22.

하나님께서서는 일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이십이절에서 그 대화를 마치셨으므로, 할례의 언약에 관한 전체 대화는 히브리 알파벳 스물두 글자의 예언적 문맥 안에 놓여 있었다. 한편 그 스물두 절의 주제는 여드레째 되는 날에 이루어져야 할 할례의 의식이었다. 창세기 그 본문의 중심, 곧 중간점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으로 표상된 십사만 사천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이다. 창세기 제11장부터 제22장까지의 장들의 계열에서 그 중간점은 제17장이며, 그 장의 절대적 중간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관한 대화를 그치시는 이십이절이다. 이로써 그 중간점은 스물두 글자로 된 히브리 알파벳의 문맥 안에 놓이게 된다. 그 스물두 절의 중간점은 물론 십일절이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할례할지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창세기 17:11.

성경 제11장부터 제22장까지의 네 단락의 중간점은, 그 중간점의 사상을 완결하기 위하여 세 절을 포함한다.

이것이 나와 너와 네 뒤의 네 자손 사이에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이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야 하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지니라.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난 지 팔 일 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지니, 집에서 난 자든지 네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다 그리할지니라. 창세기 17:10-12.

표징은 깃발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 구절은 곧 십사만 사천인 그 깃발에 관한 것이다. 사내아이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마치 노아의 언약이 방주 안의 여덟 영혼과 함께했던 것과 같으니, 이로써 숫자 팔을 사용하여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들은 빌라델비아인들이 되어야 하니, 이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바울은 이를 육체의 십자가 처형의 상징으로 밝힌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안에 있게 되며, 그 결합이 곧 깃발이다. 이는 화잇 자매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자녀들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은 타락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속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으며, 하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성령께서는 인간 주체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의 소원과 이에 대한 동의에 따라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 안에 회복되며, 그는 날마다 은혜로 강건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의와 참된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더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표상된 자들에게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기름은, 곁에 바르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진리가 영혼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련하며, 성결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서로 단절된 교리들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영원한 이해관계들을 포함하는 살아 있는 진리들인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이다. 그분 안에 신적 진리의 완전한 체계가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은 진리의 기초요 기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은 품성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하늘에 미치며 영원을 아우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야 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에게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지탱하는 은혜의 기름이 부여된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다. 남자나 여자가 격동시키는 상황 아래에서 깊은 감정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그 영혼 속에 깊고도 확고하며 인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도 가지고 있으며, 마귀에게 속고 미혹되어 자신을 신뢰하게 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 때에만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위기는 품성을 드러낸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엄숙한 음성이 외쳤을 때, 잠자던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누가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는지가 드러났다. 양편 모두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나, 한편은 그 비상한 상황에 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은 준비가 없이 드러났다. 품성은 환경에 의하여 드러난다. 위급한 경우는 품성의 참된 금속을 드러낸다. 어떤 갑작스럽고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상실이나 위기, 어떤 뜻밖의 질병이나 고통, 곧 영혼으로 하여금 죽음과 얼굴을 맞대게 하는 어떤 일이, 그 품성의 참된 내면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에 대한 참된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영혼이 은혜로 지탱되고 있는지, 등불과 함께 그릇 속에 기름이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시험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등불은 꺼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의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비상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가?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미련한 처녀에게 자기들의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형성해야 한다. 그것은 소유자가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려 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자비가 아직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충실한 경고를 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오래 참음과 교훈으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성경의 교리들을 마음에 깊이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진심 어린 동정을 베풀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신중한 생애를 살고 거룩한 언어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품성의 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단체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땅히 숙고하자. 우리는 우리가 형성한 품성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영혼을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죽음의 침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날마다의 생활의 거래들과 우리가 나타내는 정신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또한 큰 일에도 충성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분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그대로 행하며 일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닥쳐올 엄숙한 뜻밖의 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험의 기간, 곧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조건들을 차분히 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조건들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심한 훈련을 통하여, 시간마다 날마다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단련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요, 또 나와 화친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욱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등불과 함께 그릇들에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로 비유된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Review and Herald, 1895년 9월 17일.

아브라함의 할례와 방주 위의 여덟 영혼으로 예표된 십사만 사천의 기치는, 곧 닥쳐올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비유 가운데의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화잇 자매가 그 대목을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으니, 이는 그 구절이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를 직접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그를 두고 노래할지니라, 포도주가 붉은 포도원이라. 나 여호와와 그것을 지키며, 매 순간 물을 주리니, 혹 누가 그것을 해할까 하여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리라. 분노는 내게 없나니, 누가 찢레와 가시로 나를 대적하여 싸우겠느냐? 내가 그것들 사이로 나아가 함께 불사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의 능력을 붙들어 나와 화평하게 할 것이요, 그가 나와 화평하게 되리라.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움이 돌아, 세상 지면에 열매를 가득 채우리라. 주께서 그를 치신 것이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같이 하셨느냐? 혹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그를 죽인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도륙을 당한 것이냐? 그가 움이 트면 주께서 절도 있게 그것과 변론하시며, 동풍 부는 날에 그의 거센 바람을 그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곧 그의 죄를 없이하는 모든 열매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수진 백악석같이 만들 때에,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며, 거처는 버림을 받아 광야처럼 내버려지리니, 거기에서 송아지가 먹고, 거기 누워 그 나뭇가지를 삼키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이리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르리라. 이는 그들이 총명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27:2-11.

“동풍의 날” 곧 야곱의 죄악이 제거되고, 또 “지각이 없는 백성”의 다른 부류가 모여져 불사름을 당하는 때는 십사만 사천 명이 인침을 받는 시기이다. 그 기간에는 그리스도와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마지막 움직임들은 신속하다.

제사장들은 섬기기 시작할 때에 서른 살이어야 하였으며, 십사만 사천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베드로의 왕국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도 산 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베드로전서 1:5.

제사장들은 팔일간의 기름부음 예식 동안 섬기도록 준비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숫자 여덟은 궤 안에 있는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 직분의 상징이다.

## 아론의 지팡이

십사만 사천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 직분은 언약궤 안에서 싹 난 아론의 지팡이로 표상된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 때, 그것은 아론과 싹이 나지 아니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른 지팡이들 사이에 구별을 드러내었다. 성경에서 식물의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비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들을 다루므로, 제사장직의 아론의 지팡이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1844년의 밀러파에 부합하는 상황 속에서 십사만 사천의 기름부음을 상징한다. 그것은 늦은 비의 참된 기별과 거짓 기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다룬다. 그 구별은 요엘이 “새 포도주”가 한 부류에게서 끊어졌음을 지적할 때 이루어진다. 새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진 그 부류는 이사야가 말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다. 그들은 또한 오순절에 제자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한 자들이며, 1888년의 반역자들로서, 1863년의 반역자들이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따랐다. 이 모든 예언의 노선들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하여 재림신앙이 약 백이십오 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화잇 자매가 밝힌 그 노선과 일치한다.

## 8, 여든과 81

숫자 삼십과 숫자 팔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말일의 기(旗)인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숫자 팔은 숫자 팔십의 십일조인데, 팔십은 거룩한 곳에서 분향하려 시도한 웃시야 왕을 대제사장과 함께 대항하여 막아 선 팔십 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의 수이다. 팔십일은 개선된 교회의 제사장직이라는 맥락에서 신성이 인성과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웃시야의 반역의 역사는, 라피아 전투 직후 프톨레미의 반역과 일치하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그 팔십일의 제사장직과 연결된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일을 지목하므로, 곧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제사장직, 다시 말해 팔십 명의 인간 제사장과 한 분의 신적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진 개선된 교회의 제사장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14년에 개시된 역사 속에서 확인된다.

창세기의 열두 장 계열의 한가운데 장은 제십칠장이다. 그 열두 장 계열의 한가운데 절은 이십이 절이다. 이십이 절은 일 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와 분명하게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므로, 히브리 알파벳 스물두 글자의 표를 지닌 하나의

예언적 계열의 끝으로서 이십이 절을 식별하게 한다. 스물두 절로 이루어진 그 계열의 한가운데 절은 십일 절이며, 이 절은 다시 십사만 사천의 기를 밝히는 세 절의 한가운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십일 절은 세 개의 뚜렷한 절들의 한가운데 절이며, 십일 절은 그 스물두 절의 핵심 진리뿐 아니라 그것이 속한 그 세 절의 핵심 진리까지도 전달하므로, 십일 절과 이십이 절을 주된 사상의 시작과 끝으로 식별하게 한다. 그러므로 제십칠장 십일 절부터 이십이 절까지가 제십일장부터 제이십이장까지의 주된 주제이다.

마태복음 열한 장부터 스물두 장까지의 가운데는 십육 장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20.

창세기의 중간 지점에서와 같이, 제20절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13절에서 시작된 특정한 대화의 끝을 이룬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20.

## 라피아와 파니움

마태복음의 가운데 단락은 뚜렷이 구별되는 대화와 주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증언에 나타난 언약의 상징이 라피아 전투와 일치하는 것처럼, 마태의 대화는 파니움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다. 다니엘 11장 15절의 파니움은 마태복음의 열두 장으로 된 계열의 중간점이며, 다니엘 11장 11절의 라피아는 창세기의 열두 장으로 된 계열의 중간점이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250년은 기원전 207년에 끝났는데, 이는 11절의 라피아와 15절의 파니움 사이의 중간점이며,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징과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서로 합류한다.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그분의 침례 때에 알아본 자신의 인식을 증언하고 있다.

시몬은 “듣는 자”를 뜻하며, 바요나는 “비둘기의 아들”을 뜻한다. 시몬은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침례의 기별을 들은 자였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온 1840년 8월 11일을 예표하였다. 동일한 천사가 9/11에 내려왔다. 베드로는 9/11을 십사만 사천의 세대에 대한 시험의 기별로 인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한 줄 한 줄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는 비둘기의 "아들"이므로, 아들로써 상징적으로 마지막 세대를 대표한다. 베드로는 마지막 세대의 상징이며, 그의 이름에 대한 상징적 수로 볼 때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언적 선로에 나타나실 때 능력을 부여하는 기별을 듣는 마지막 세대를 대표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침례와 관련된 기별을 알아보았고, 그러므로 예수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 곧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신 분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9/11에 내려온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또한 1840년 8월 11일에도 내려왔음을 이해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9/11을 오직 두세 선의 증언으로만 확립되는 이정표로 이해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의 고백은 9/11이 셋째 화의 도래를 식별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세대를 위한 시험의 기별이다. 그 고백이 바로 이름이 바뀌는 지점이다. 아브라함은 라피아에 있고, 베드로는 십자가 직전의 파니움에 있다. 파니움과 십자가 사이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시몬이 자기 세대를 위한 시험의 기별에 대한 그의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로 바뀐 것은 바로 이 파니움에서이다. 십사만 사천에게 있어서 그 시험의 기별은 셋째 화의 이슬람이며, 그것은 예언적 역사에서 9/11에 도래하였다.

재림주의에 대한 시험의 시작은 9/11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림주의에 대한 시험의 끝에서 셋째 화의 이슬람 기별은 시몬의 이름이 언제 어디서 바뀌는지를 밝혀 준다. 처음에 9/11의 기별로 예표되었던 바를 따라,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해하는 기별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한 교정된 기별이다. 거기에서 나팔절은 기치의 승천과 속죄일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일과 더불어 이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일들을 계속 다루겠다.